

2012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언어 영역 •

1	④	2	②	3	③	4	④	5	④
6	⑤	7	④	8	④	9	②	10	④
11	④	12	④	13	④	14	①	15	⑤
16	②	17	④	18	⑤	19	⑤	20	②
21	④	22	④	23	③	24	④	25	③
26	③	27	④	28	①	29	①	30	④
31	②	32	③	33	①	34	①	35	④
36	③	37	⑤	38	④	39	④	40	①
41	④	42	④	43	②	44	②	45	①
46	⑤	47	①	48	③	49	④	50	④

[듣 기]

<1번> 이제 여러분은 이야기 한 편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간디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는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 건강을 해칠까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제 말은 듣지 않습니다. 제 아들은 선생님을 존경하오니 부디 한번 만나서 타일러 주십시오.” 간디는 한참 생각한 뒤 2주 후에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2주 후에 찾아온 젊은이에게 간디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우니 그만 먹는 게 좋을 듯하오.”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렵겠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젊은이가 돌아가고 난 뒤 제자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바로 다음 날 오라고 하시지 않고 2주 후에 부르셨습니까?” 간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단 것을 끊어버리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세. 나도 단 것을 먹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단 것을 끊으라고 말할 수는 없었단네.”

1. [출제의도] 이야기를 듣고 교훈 파악하기

간디는 젊은이에게 단 것을 먹지 말라는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단 것을 끊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타인을 가르치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이다.

<2번> 이번에는 한옥에 대한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서 : 할아버지! 학교에서 한옥에 대해 알아오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너무 막막해요.
 할아버지 : 그래? 할아버지가 좀 도와줄까? 우리 민서, 한옥의 건물 배치에도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데, 들어 본 적 있니?
 민서 : 아니요, 처음 들어 봐요.
 할아버지 : 할아버지한테 책이 하나 있는데.(휴지)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 우리 조상들은 시원한 바람을 얻기 위해 ‘바람길’이란 걸 만들었어. 그림에서 두 건물 사이에 길이 하나 나 있는 거 보이지? 이게 바로 바람길이야.
 민서 : 아~ 이게 바람길이군요. 그런데 왜 바람길 남쪽과 북쪽의 간격이 달라 보이죠?
 할아버지 : 그래, 잘 봤구나. 네가 본 것처럼 남쪽이 북쪽보다 간격이 더 넓지? 이건 의도적으로 건물을 그렇게 배치했기 때문인데, 여기에 바로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어. 길이 넓은 남쪽에서 들어온 바람은 좁은 북쪽 길로 빠져나가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세차진단다. 반대로 북쪽에서 들어온 바람은 남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순해지지. 한마디로 바람길은 여름에 불어오는 남동풍은 북쪽까지 시원하게 밀려가게 하고, 겨울에 부는 차가운 북서풍은 순하게만 들어주는 거야.

민서 : 와~ 정말 신기하네요.
 할아버지 : 그렇지? 그럼 할아버지가 하나 물어볼까? 만약 여름에 땀을 식힌다면, 이 그림에서 가장 시원한 곳은 어디일까?

2. [출제의도] 대화를 듣고 상황에 적용하기

여름에 넓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좁은 북쪽 길로 빠져나갈 때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고 세차진다고 했으므로, 북쪽에 인접한 ㉠이 가장 시원한 곳이라 할 수 있다.

<3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문화할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문화권의 문화 상품이 다른 문화권으로 진입할 때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그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문화적 할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할인되는 비율을 문화할인율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될수록 할인의 폭이 크고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문화 상품도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될수록 문화할인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문화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문화 상품이 언어나 사고방식 등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다른 문화권에 수용되기 어렵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문화할인율이 낮다는 것은 수용되기 쉽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문화할인율의 개념이 아직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는 문화적·정서적 성향이 비슷한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는 비교적 쉽게 수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할인율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와 문화적 토양이 전혀 다른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문화할인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문화할인율이 높아 다른 문화권에 진입하기 어렵던 문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문화적 친근감을 높인다면 문화할인율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문화 산업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문화 상품을 제작할 때 시장 전략의 하나로 문화할인율을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한 문화권의 문화 상품이 다른 문화권으로 진입할 때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문화적 친근감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문화적 친근감을 높인다면 ‘문화할인율’은 낮아질 수 있다. ① ‘문화할인율’이 낮다는 것은 한 나라의 문화 상품이 다른 나라에 쉽게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문화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한 나라의 문화 상품이 다른 나라에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화할인율’의 높고 낮음을 확인하면 문화의 수용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② 동일한 문화 상품도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쉽게 수용될 수도 있고, 수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⑤ ‘문화할인율’이 낮다는 것은 한 나라의 문화 상품이 다른 나라에 쉽게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문화 상품을 제작할 때는 ‘문화할인율’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4~5번> 이번에는 라디오 시사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님을 모시고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라는 말이 좀 낯선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남 성 : 예, 컨슈머 리포트는 미국의 소비자협회가 1936년부터 발행해 온 월간지인데요. 소비자들에게 각종 상품의 성능이나 가격 등을 비교·분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컨슈머 리포트 도입은 늦은 감이 있군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를 만든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듯한데요. 도입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남 성 : 날마다 수많은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믿을 만한 상품 정보를 얻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하여 각종 상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 예, 그렇군요. 소비자들도 크게 환영할 듯 한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청취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남 성 :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서 관심 품목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컨슈머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이후 작성된 컨슈머 리포트는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데, 미국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미국의 경우 LCD TV 하나의 성능 조사에만 5억 원을 들인 것에 비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정한 1년 예산은 2억 원 정도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남 성 : 적은 예산으로도 발상만 전환하면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올린 사용 후기를 참고하여 상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진행자 : 네, 소비자들의 참여로 예산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 성 :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정보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생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분석을 시도하고, 결과가 나오면 엄정하게 순위까지 매겨서 보고서를 만들 생각입니다.

4. [출제의도]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진행자가 네 번째 발언에서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대담자의 발언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담자의 설명을 요구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대담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대담자의 세 번째 발언을 보면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는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고 말하고 있다.

[쓰 기]

6. [출제의도] 연상 내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의 기능은 적절한 주행 속도의 안내를 통해 운전자가 과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상하면 ‘학습자는 주어진 학습 환경이나 조건에 맞추어 공부해야 한다.’ 정도가 적절하다.

7.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현금 기부’, ‘물품 기부’, ‘재능 기부’는 기부의 주체가 아니라 기부의 종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종류’를 ‘주체’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실천하

는'의 목적어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목적어 '나눔을'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생활 속 나눔 운동'은 '학생들이' 실천하는 것이므로 '실천할'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③ 앞문장이 '생활 속 나눔 운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져야 하며, 기부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의구심을 언급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첫째 문단에서 생활 속 나눔 운동을 소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그것을 소개한 셋째 문단이 이어져야 하며, 둘째 문단처럼 생활 속 나눔 운동의 의의를 밝히고 동참을 권유하는 내용은 셋째 문단의 뒤에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나눔'에서 나눔의 의의가, '나눔의 마법'에서 비유가, '작은 것을 나누면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에서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① 비유와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눔의 의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⑤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9. [출제의도] 개요 작성 및 수정·보완하기

<보기>는 '지역사회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에 관련된 글을 쓰기 위한 개요이고, ㉠은 실태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그런데 '학교 체험활동과의 연계성 강화'라는 항목을 추가하면 상위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된다. 따라서 적절한 수정·보완의 방법이 될 수 없다. ① ㉠은 논지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 증대로' 바꾸어야 한다. ③ ㉡의 '문화 행사 유치에 대한 지역 간 경쟁 과열'은 글의 논지와 동떨어진 내용이므로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동아리의 부족'으로 고쳐야 한다. ④ 'II-2-다'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내 동아리 지도자 양성'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판단하기

자료 (가)는 할인 쿠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는 신문 보도이다. 자료 (나)-1은 직장인보다 대학생들이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쿠폰 이용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료 (나)-2는 할인 쿠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불만을 느끼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다)는 할인 쿠폰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의 절감과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나 사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료 (라)는 할인 쿠폰이 기업의 판매 전략으로써 소비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 (라)를 통해 소비자들이 할인 쿠폰을 사용하여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끌어 낼 수 있으나 이를 자료 (나)-1과 연관지어 대학생들이 할인 쿠폰으로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11. [출제의도] 관용적 표현 이해하기

'손이 재다'는 '일처리가 빠르다.'의 의미이다. ① '손을 끊다'는 '교제나 거래, 맺었던 관계를 중단하다.'의 의미이다. ② '손이 서들다'는 '어떤 일에 익숙하지 않다.'의 의미이다. ③ '손이 여물다'는 '일하는 것이 빈틈없고 매우 꼼꼼하다.'의 의미이다. ⑤ '손이 뜨다'는 '일하는 동작이 매우 굼뜨서 일을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의 의미이다.

12. [출제의도] 연결어미 이해하기

ㄴ의 '-(으)니까'로 연결된 문장에서 앞의 주어는 '비가'이고, 뒤의 주어는 '제가'로 앞뒤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ㄹ에서도 역시 앞의 주어는 '비가'이지만, 뒤의 주어는 명령형일 때에는 '네가', 청유형일 때에는 '우리가'로 앞뒤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에서 언급한 '-(으)니까'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시가복합]

[13~18] <출전> 이육사, 「자야곡(子夜曲)」, 김용택, 「그대 생의 숲속에서」, 이별, 「장육당육가(藏六堂六歌)」

13.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에서는 '무덤 위에' 푸를 '이끼'를 통해 화자가 기대하는 모습의 고향이 아닌 상황에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내면 심리가 드러난다. (나)에서는 '내리는' '솔이파리들'과 지는 '상수리나무 목은 잎'을 보고 자연의 변화에 주목하며 과거에서 벗어나겠다는 화자의 의식이 드러난다. (다)에서는 '나를 잊'은 '백구'를 통해 자연과 하나 된 경지를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14.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 비교하기

(나)에서는 '그대는 저 수많은 새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을 뜨리 / 그대 생의 이 고요한 숲속에서'를 어순이 도치된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가)에는 어순이 도치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② (가)는 처음과 끝을 반복하여 대응시킴으로써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으나, (나)는 처음과 끝이 서로 대응되지 않는다. ⑤ (가)는 '-리라'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나)는 '-(으)리', '-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나 기능 비교하기

(나)의 '숲속'은 화자가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구체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다)의 '강'은 그곳의 냇수터에서 화자가 낚시하는 구체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16.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검은 꿈'은 슬픔과 자랑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표현조차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절망적인 화자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 일제 강점 하의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17. [출제의도] 작품 심화하여 이해하기

'내 마음의 가장자리'는 화자의 마음 한 구석으로 과거의 삶을 마음속에 잡아두지 않겠다는 화자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으며, '숲속 끝'은 해맑은 햇살이 찾아오는 밝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곳이므로, 이 시구들에는 소외된 삶에 대한 외로움은 드러나 있지 않다.

18. [출제의도] 자료를 참고하여 시구 이해하기

㉠은 맑고 탁함을 분별하여 혼탁한 세상에서는 벼슬을 하지 않고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화자 자신과는 달리, 맑고 탁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탁한 현실 속에서도 세상에 나아가 이득을 취하려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상의 청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사 회]

[19~21] <출전> 조순, 정운찬 외 「경제학원론」

19.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우월전략에 대한 내용은 2문단에 나와 있다. 우월전략이 안정적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진술은 맞지만, 이 글에는 상대방의 전략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진술되어 있다.

20. [출제의도] 사례에 맞는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2문단을 보면 우월전략은 담합이 이루어지기 이전 상황에서 복점기업들이 상대 기업의 전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과 '을'은 담합을 통해 우월전략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1. [출제의도] 자료 이해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의 사례에서 B사는 1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어야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A사가 소형매장을 선택한다면 B사는 시장에 진입하여 13%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B사는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A사와 B사는 각각 13%의 동일한 수익률을 얻게 된다. 반면, A사가 대형매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B사가 시장에 진입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5%이기 때문에 B사는 시장 진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A사는 대형매장을 선택함으로써 B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17%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인 문]

[22~33] <출전> 김철호 외, 「세계의 사상 100선」

22. [출제의도] 글쓰기에 활용된 전략 파악하기

절충은 '서로 다른 견해나 관점을 어느 편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조절하여 알맞게 함'이란 뜻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반된 이론을 절충하는 방식을 활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2문단 이하에서 경험주의, 주지주의, 메를로 폰티의 이론을 대비하여 차이점을 부각했다. ③ 1문단에서 의문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했다. ⑤ 각각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사례'를 활용했다.

23.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주지주의는 인간의 지각에서 정신 작용을 강조했지만 메를로 폰티는 인간의 '몸'에 주목하여 '현상학적 장'에서 '몸'이 체험한 것이 곧 지각이라고 설명했다.

2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2문단에서 경험주의는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지각 경험은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하였으므로, 경험주의의 관점에서는 '철수'가 '노란 빛깔의 장미'를 '빨간 흑장미'로 지각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① 2문단에서 경험주의의 관점에 따른 객관적 세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주지주의가 지각 주체의 정신작용을 객관적인 세계보다 더 중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주목'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의 의미이다. '경고나 훈계의 뜻으로 일깨움'의 의미를 지닌 단어는 '주의(注意)'이다.

[현대소설]

[26~29] <출전> 김정환, 「산거죽」

26.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은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정황을 모두 알고, 이를 직접 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① 과거에서 현재의 시간적 순서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② 이 글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외양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27. [출제의도] 인물 간의 관계로 작품 감상하기

'배수 시설의 양도를 거절당한 동팔이는 어디 보자는 듯이 '마삿등' 일대에 자기대로의 시설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으로 보아, 호동팔이 수도 시설을 설치한 것은 황거철의 제안 거부에 대한 반발 심리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글에서 동네 사람들이 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호동팔이에게 어떤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호동팔이(㉠)이 동네 사람들(㉡)이 제시한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8.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황거칠 씨가 밝힌 '새로운 계획'은 새 수원이 있는 굴밤나뭇골에 샘을 파서 마을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획'은 '새 수원'을 찾아야 이를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9.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우리들 것'은 황거칠 씨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을에 설치한 배수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들 것'에 해당하는 것은 '마삿동' 일대의 배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과 ㉡는 호동팔이 마을에 설치하는 배수 시설을 의미한다.

[기 술]

[30~33] <출전> 송동근 외, 「전기집진 기술현황」

30. [출제의도] 주요 정보 이해하기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를 얻기 위해서는 방전봉에 (-)극을 연결하여 높은 전압을 가해야 하며, 전자(-)와 결합하여 대전된 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해서는 집진판에 (+)극이 연결되어야 하므로 이 글을 통해 방전봉과 집진판에 서로 다른 극을 연결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3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확인하기

우선 극성에 의해 이동하는 물질은 코로나 방전 이후 발생한 전자(-)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극인 집진판으로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에 의해 대전된 공기 속 오염물질 역시 음전하를 띠게 되므로 (-)극인 ㄱ(방전봉)이 아니라 (+)극인 ㄴ(집진판) 쪽으로 이동하여 포집된다.

32.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코로나 방전에 의해 기체 분자의 핵으로부터 분리된 전자(-)는 극성에 의해 (+)극의 집진판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오염 물질의 표면에 흡착하게 되면 오염 물질을 대전시키게 되고, 대전된 오염 물질, 즉 대전입자가 (+)극의 집진판 쪽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하지만 오염 물질의 표면에 흡착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자의 극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전자(-)가 (-)극인 방전봉 쪽으로 이동한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33.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이해하기

'흡착하다'는 '어떤 물질이 달라붙다'는 의미이므로 '스며든다'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 술]

[34~37] <출전> 정한조, 「사진 감상의 길잡이」

34. [출제의도] 글에 언급된 내용 파악하기

이 글에는 '메이킹 포토그래피'가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단지 1980년대 들어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만 하였다. ㉠ 1문단에 언급되었다. ㉡ 5문단에서 메이킹 포토그래피는 사진의 다양한 예술성을 보여주는 데 기여하였다고 했다.

35. [출제의도] 글의 내용 작품에 적용하기

㉠은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카메라로 찍은 다음 사진들을 이어 붙여서 입체감을 드러냈고, <보기>의 작품은 대상의 부분들을 다양한 시점을 통해 표현하여 입체감을 드러냈다. <보기>의 작품이 동일한 형태를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입체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 ㉠과 <보기>의 작품은 모두 평면에 입체감을 구현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평면이 주는 제약

극복하고자 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 2문단에서 ㉠은 구성이 자연스러워 한 시점에서 찍은 사진처럼 느껴진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피카소의 작품은 코와 얼굴을 바라본 시점이 다르고, 겹쳐진 다리의 모습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했다.

36.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적용하기

<보기>에 따르면, 스티글리츠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여 '사실성'을 가질 때 사진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것이라 생각했고, 메이킹 포토그래피 작가들은 다양한 기법들을 동원해 대상을 변화시키거나 아예 처음부터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었으므로 스티글리츠가 메이킹 포토그래피 작가들을 비판한다면 '사진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대상을 찍는 것이지, 대상을 가공하여 찍는 것이 아니다.'라 했을 것이다. ㉠ 스티글리츠는 사진의 사실성을 추구했으므로 사진 이외의 다른 요소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 스티글리츠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한 사진가이므로 가상적인 설정을 하지 않았다.

37.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의 '짜다'는 '계획이나 일정 따위를 세우다.'의 의미이므로 '학습 계획을 짜다.'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짜다'는 '사개를 맞추어 가구나 상자 따위를 만들다.'라는 의미이다. ㉢ '짜다'는 '사람을 모아 무리를 만들다.'라는 뜻이다.

[고전소설]

[38~41] <출전> 작자미상, 「반씨전」

38. [출제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반씨 모자가 채씨와 위진이 해치려는 계략을 피해 산으로 피신하여 노인(신령)을 만나 도움을 얻게 된 것은 양부인의 청에 의한 것이지만 반씨 모자가 노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 것은 아니다.

39. [출제의도] 서사 구조 파악하기

반씨의 꿈에 양부인이 나타나 위험에 처했음을 알려 줌으로써 반씨 모자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양부인이 산이라는 피신처를 안내해 준 것은 아니다.

40.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의 특징 파악하기

[A]에서 채씨는 남편인 위진에게 반씨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고 사실을 왜곡하여 반씨 모자를 처치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41. [출제의도] 한자 성어 적용하기

㉠은 여막을 벗어나 산곡으로 들어간 반씨 모자가 깊은 밤에 길을 잃은 데다 몸의 힘까지 점점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의 뜻을 지닌 '설상가상(雪上加霜)'이 적절하다.

[과 학]

[42~44] <출전> 안중배 외, 「대기과학」

42.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하기

강수가 형성되는 원리를 온대 지방이나 한대 지방에서는 얼음 결정이 성장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열대 지방에서는 물방울이 충돌-병합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구체적 과정 이해하기

㉠가 달라붙어 성장하는 빙정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다. ㉠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문단에서 ㉠은 0℃ 이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이것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충돌-병합 과정은 구름 속에 있는 다양한 크기의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져서 강수가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름 속 물방울의 수가 많을수록 강수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구름 속 물방울의 수가 적을수록 짧은 시간 내에 강수를 생성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3문단에서 충돌-병합 과정은 상대적으로 큰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작은 물방울들과 충돌하며 합쳐지고, 이렇게 더 커진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다른 물방울과 충돌하며 합쳐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름 속 물방울의 크기가 다른 것이 강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공기 중의 습기를 흡수하는 물질을 뿌리면 구름 속 물방울이 크게 성장하므로 충돌-병합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극문학]

[45~47] <출전> 박완서 원작, 박진숙 각색, 「나목」

45. [출제의도] 인물이 처한 상황 파악하기

서둘러 군복을 벗고 혁이의 옷으로 갈아입는 민이의 모습을 통해 민이는 현재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큰아버지는 자신과 가족들이 처한 현실을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인물이다. ㉣ 경아는 자신의 제안으로 두 오빠가 죽게 된 일에 대해 회상하며 깊은 자책에 빠지게 되는 인물이다. ㉤ 옥이는 큰집 식구들의 현재 거처에 관심을 보이는 인물이다.

46. [출제의도] 장르적 특성을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S#46에서 실신을 하여 쓰러져 있던 어머니는 S#48에서는 탈진 상태로 겨우 서서 경아가 숨죽여 울고 있는 건넌방을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S#46~S#48로의 시간 흐름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려는 어머니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S#47에서 제시된 효과음(E)에서 경아는 자신의 제안으로 두 오빠가 행랑채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던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두 오빠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자책하고 있다. ㉣ 큰집 식구들이 있는 안방에서 부엌으로 공간을 이동하게 됨으로써 어머니와 경아는 오빠들의 거처 이동과 관련한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47. [출제의도] 등장인물과 사건 간의 관계 파악하기

경아와 어머니는 오빠의 거처 이동과 관련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오빠들의 거처를 행랑채로 옮기자는 경아의 제안은 S#46에서 비참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아와 어머니의 의견 대립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큰집 식구들이 방문하여 경아의 두 오빠들은 행랑채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기에 큰집 식구들이 사건 발생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S#47에서 경아는 자신의 제안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자책에 빠져 있다. ㉣ S#47에서 경아는 사건 이후 큰집 식구들에 대한 반감과 야속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사건의 발생과 그 이후에 경아네 가족이 처한 비극적 상황은 인과 관계에 의해 연결된다.

[언 어]

[48~50] <출전> 윤병천, 「한국수화의 비수지신호에 대한 언어학적 특성 연구」

4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에서 비수지 신호가 문장 종결 등의 문법적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하였으므로, 수지 신호가 주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 4문단에서 일반적인 수화 상황에서는 문장을 축약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 2문단에

서 비수지 신호는 음성언어 상황에서 사용되는 비언어적 요소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④ 6문단에서 수화는 수지 신호와 비수지 신호가 함께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하였다. ⑤ 5문단에서 강하게 명령할 때에는 비수지 신호를 문장 처음에 있는 수지 신호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하게 표현한다고 하였다.

49. [출제의도] 핵심 개념의 공통점 파악하기

1문단에서 음성언어는 청각으로, 수화는 시각으로 이해되는 체계임을 알 수 있다.(ㄱ) 1, 2문단을 통해 음성언어와 수화는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체계임을 알 수 있다.(ㄴ) 2문단에서 음성언어 상황의 비언어적 요소와 수화의 비수지 신호는 감정이나 느낌을 강조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ㄷ) 1문단에서 수화는 주로 어순이나 맥락 등에 의해 문장성분이 결정된다고 하였지만, 음성언어가 어순에 따라 단어의 문장 성분이 결정되는지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ㄹ)

5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2문단에서 비수지 신호는 문장 종결 등의 문법적인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수화의 명령문은 비수지 신호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를 명령문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은 ㉠가 아니라 ㉡와 관련이 있으며, ㉠를 바꾸는 것만으로 명령문을 표현할 수 없다. ① 4문단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비수지 신호만으로 의문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는 국어에서의 의문형 종결어미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예쁘다} {꽃}'의 순서로 수화하면 {예쁘다}가 어미의 활용 없이 '꽃'을 꾸미는 관형어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쁘다} {아이}'는 '예쁜 아이'라는 의미가 된다. ③ 1문단에서 수화는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발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보기>의 표에서는 {에서}의 수지 신호가 나타나 있지 않으면서 {방}으로 '방에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⑤ 4문단에서 {-ㅂ니까}라는 수지 신호 없이 의문을 나타내는 비수지 신호만으로 의문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 없이 ㉠에 ㉡를 함께 사용하면 '뉘니까?'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